

1. 개요

- 일시·장소 : '19.12.4(수). 14:00~18:00/농경연 농업관측상황실(오송)
- 참석 인원 : 16명
 - (청년희망위) 박경위원장, 김용현, 마상진, 서정민, 이미화, 이민수, 정남교, 조경호, 추미경 위원 9명
 - (정부기관) 농진청 지도정책과 이상래 박사, 산림청 일자리정책팀 정서린사무관 2명
 - (사무국, 청년, 용역기관) 농어촌정책팀 임성규팀장, 곽은경사무관, 김진호 비서관, 한국농수산대학 정희정 학생, KM플러스컨설팅 이상민연구원 5명
- 주요 내용
 - '밀레니얼세대를 알면 농촌의 길이 보인다' 발표 및 감상 공유(국민 제안한마당 농정을 틀자 대상수상자 정희정)
 - 국내외 청년정책 발표와 개선점 등 공유
 - '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' 최종보고 및 검토
 - 내년도 청년희망위 운영방안 모색

2. 회의 결과

- 청년세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
 - 취농분야에 있어 연고와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곳과 인력이 만나는 점점 필요
 - 농촌과 청년의 정보교류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시스템을 담당하여 청년세대의 지원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
 - 충남과 전북의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바탕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필요

□ 행안부 지역청년일자리 사업 검토

- 행안부의 지역청년일자리 사업에서 농촌형 사업 보완 필요
-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지역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원기간 종료후에도 자기주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

□ 생활공간지원에 대한 청년계층 의견 청취

- 공간제공에 있어 청년이 설계과정부터 참여하는 프로그램 제안
- 정착시기별로 단기, 중장기 단계별 거주 공간 제공 필요

□ 내년도 청년희망위에서 다뤄야 하는 분야 협의

- 어업·어촌과 산림·산촌분야의 청년농어업인 활성화 활동 모색
- 도농교류 분야 청년활동 활성화 방안 고민
- 복지와 문화분야를 포괄한 전반적인 농어촌청년 활동 활성화 방안모색
- 청년들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작업 필요

3. 향후 추진계획

- 2020년 청년희망위 의제 및 정책연구용역 과제 구체화 : 12월중